


2021년 2호

GTC BRIEF

2021
JUNE
Vol.2 No.2

GTC BRIEF는 기후기술과 관련하여 시의성 있는 현안 및 동향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임

- 
1. 국내·외 기후자원 보유기관들의 중점협력국과 프로그램 현황:
K-CTCN 프로보노 TA 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 01
_ 김제원 배크리스탈 신종석 엄다예 이원아 손지희
 2.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및 시사점: '기술개발 및 이전'을 중심으로 16
_ 손지희 엄다예 이원아 김제원 신종석
 3. 美 주최 기후정상회의('21.4) 경과 및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방향성 고찰 25
_ 이계영 최형식 이구용
 4. 미국의 청정인프라 투자계획과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시사점 34
_ 이계영 최형식

ISSUE
02

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 및 시사점: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을 중심으로

손지희, 엄다예, 이원아, 김제원, 신종석 / 기후기술협력부

jie.son@gtck.re.kr, deom@gtck.re.kr, wonalee@gtck.re.kr, jeawon@gtck.re.kr, jshin@gtck.re.kr

하이라이트

-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, 장기저탄소발전전략(LT-LEDS)으로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
- 한국의 LT-LEDS에서는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는 있으나 자국의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을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려움
- 독일, 일본, 싱가포르, 덴마크 등의 기후기술 강국들이 제시한 LT-LEDS에서는 자국 기후기술의 해외 이전을 위한 전략적 국제협력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
- 이러한 전략들은 기후기술개발과 자국기업 및 기술의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전략적파트너십 구축, 양자·다자협력 추진, 기술 및 재정메커니즘 지원, 이니셔티브 발족, 개도국 지원사업 등을 포함
- 본 브리프에서는 위의 기술 강국들이 제시한 국제협력 전략들을 검토하고, 한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 관련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함

키워드

- 장기저탄소발전전략, 탄소중립, 파리협정, 기술개발 및 이전, 국제협력
- LT-LEDS, Carbon Neutrality, Paris Agreement, Clima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Transfer, Global Cooperation

서론

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 거버넌스와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

- 기후변화대응에서의 국제 거버넌스는 ‘유엔기후변화협약*’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음¹⁾

*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.5℃ 이하로 제한하기 위하여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의 안정화를 목표로 한 국제환경협약으로, 교토의정서가 '20년 만료됨에 따라 이후 당사국의 목표 및 의무 설정을 위해 '15년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을 채택

-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포함한 총 197개의 당사국이 참여하는 국제환경협력 체계이며, 파리협정이 발효되는 '21년부터 매 5년마다 각국은 자발적으로 설정한 기후변화대응(감축 및 적응) 목표(NDC)를 제출할 의무를 지님²⁾

- LT-LEDS는 NDC와 달리 의무 제출사항은 아니나, 각 국가에서 NDC 달성을 위해 국가 전략과 이행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권고^{3),4)}
- LT-LEDS는 정책툴(tool)으로,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국가의 장기적 구조적 변화에 대한 단기적 이행 활동을 제시, 즉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음⁵⁾
- '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 차원의 종합적 이행점검이 도입되며, '기술개발 및 이전'에 대한 개도국 지원도 고려 대상이 됨⁶⁾
- 파리협정의 주요 아젠다에 대해 국내 담당부처가 지정되어 있으며, 과기부는 '기술개발 및 이전'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관련 협상을 포함한 활동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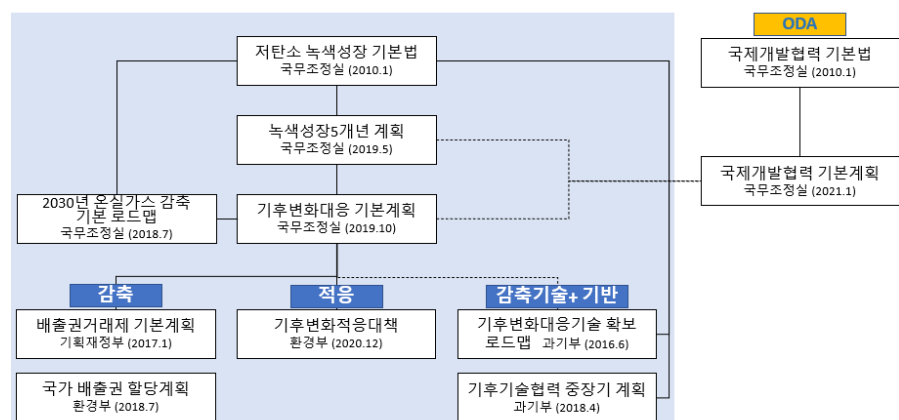
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·제도에서의 국제협력

『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』과 『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촉진법』

- 기후변화 대응 관련 국내 주요 법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,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이 있으며, “국제협력”에 대한 조항은 아래와 같음
 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의 ‘국제협력’ 관련 조항은 (제26조)녹색기술의 연구 개발 및 사업화 촉진과 (제61조)국제협력 증진(①국외기관과의 공동연구, ② 개도국 지원, ③기후변화대응 평가를 위한 노력)이 있음⁷⁾
 - 「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」의 ‘국제협력’ 관련 조항은 (제12조)기술지원 체제와의 협력 등으로 ①국가 간 기후변화대응 기술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 촉진, ④기후기술센터·네트워크(CTCN)가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술 협력사업에 출연 또는 지원 등이 있음⁸⁾

※ 참고: 「국제개발협력 기본법」을 따르는 ‘국제개발협력(ODA)’은 인도적 차원에서의 ‘개발협력’으로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두고 사업을 시행되며, 최근 국가 정책(그린뉴딜, 탄소중립) 반영을 위해 「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(‘21.1.)」을 발표하고 일부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계획 수립 중^{9),10)}

[그림 1]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제도 체계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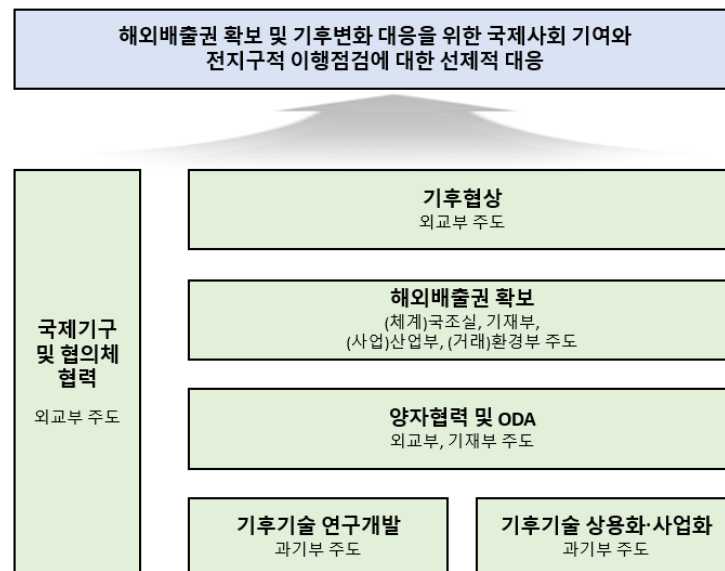
※ 저자작성

기후변화대응 상위 국가계획에서의 국제협력

『녹색성장5개년계획』과 『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』

- 기후변화대응에 있어 국내 최상위 국가계획은 「녹색성장 5개년 계획」과 「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」을 들 수 있으며, “국제협력”에 대한 과제 내용은 각각 포괄적, 세부적으로 제시
 - 「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’19~’23)」에서의 ‘국제협력’은 ‘파리협정 대응에서 신기후체제 이행 전환’으로의 큰 방향성으로 갖고 기후협상, 국제기구협력, 선진국·개도국 협력에 기반한 신기후체제 글로벌 협력 확대, 그린 ODA 협력 강화 등의 과제 수립¹¹⁾
 - 「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(’20~’40)」은 기후변화 관련 총괄 국가계획으로, 기후협상 관련 의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, ‘국제협력’에 관해 해외배출권 확보, 기후기술기반 조성 및 상용화 추진, 기후기술 연구개발 기반 조성, 기후협상 및 다자·양자협력 강화를 위한 과제 수립¹²⁾

[그림 2]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 법 및 상위 국가계획에서의 국제협력 흐름도



※ 저자작성

-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이미 범부처적 이해가 마련된 국내 법조항 및 국가계획에서 제시된 ‘국제협력’ 유형은 크게 6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: ①해외배출권 확보 체계 마련, ②기후기술 상용화·사업화(기반사업), ③기후기술 연구개발, ④기후협상, ⑤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협력, ⑥양자협력 및 ODA
 - 이에 대한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 관련 내용은 ‘기술력 향상을 위한 기후기술 연구개발’과 ‘기후기술 확산 및 보급을 위한 기후기술 상용화·사업화’가 있음

주요국 장기저탄소발전전략 (LT-LEDS)에서의 국제협력

독일, 일본, 싱가포르, 덴마크의 LT-LEDS

- 현재까지('21.4월 기준) 우리나라를 비롯한 프랑스, 덴마크, 독일, 일본, 미국 등의 LT-LEDS 29건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접수됨¹³⁾
 - 이 중 독일, 덴마크, 일본, 싱가포르에서 국제협력에 대한 전략을 비교적 상세하게 제시하였으며, 자국의 기후기술 개발과 이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과 기후자원 조성, 이니셔티브 발족 및 주력 기술 분야에 대한 개도국 협력 강화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
- (독일) 2016년 11월 “Climate Action Plan 2050”이라는 제목으로 LT-LEDS를 발표 하였으며,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¹⁴⁾
 - ※ (탄소중립 목표)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80~95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가깝게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
 - 전략적파트너십 구축: 2016년 국제사회의 NDC 달성과 기후행동(Climate Action) 이행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(NDC Partnership*) 구축 주도
 - * UNFCCC와 WRI에서 호스트 기관으로 활동하며, 114개국의 회원국 간 NDC 목표 달성 이행 지원. 개도국 및 신흥경제국에 대한 재정 지원 포함(한국은 비회원국임)¹⁵⁾
 - 양자·다자협력 추진: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독일 연방경제협력 개발부의 개발협력재원과 연방환경부의 기후자원을 통해 기후취약국 대상 재정 지원
 - 지속가능 개발협력: 개발협력의 목표를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, 산림 및 토지복원, 해양 및 연안보호, 교통, 적응, 순환경제, 자원효율화에 대한 협력에 주력
 - 기술메커니즘 지원: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술메커니즘*에 대한 지원 확대
 - *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선진국과 개도국의 '기술개발 및 이전'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 설립되었으며, 이행기구로서 기후기술센터·네트워크(CTCN)가 있음
 - 이니셔티브 발족: G7 기후위험보험이니셔티브*, 국제기후이니셔티브(IKI)** , 국가기후이니셔티브(NKI)*** 등
 - * (G7 Climate Risk Insurance Initiative) 2015년 G7 정상회의를 통해 발족되었으며, 2020년까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약 4억 명의 개도국 인구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 보험 기금 조성
 - ** (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)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 다양성 보호를 위해 2008년 발족
 - *** (National Climate Initiative) 개도국 지방정부, 교육기관, 기업 등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이행 지원을 위해 2008년 발족
- (일본) 2019년 6월 “The Long-term Strategy under the Paris Agreement”라는 제목으로 LT-LEDS를 발표하였으며,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¹⁶⁾

※ (탄소중립 목표) 2050년까지 2013년 대비 80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둬, 2020년 10월 탄소중립 달성 목표 표명¹⁷⁾
(국제협력의 목표) 기후기술과 관련 인재, 투자의 글로벌 허브가 될 것을 목표로 국제 협력을 추진

- 기후자원 조성: ODA, ESG 자금 등 민간 및 공공자원을 통해 기후자원을 조성하고, 그린본드*와 그린사무라이본드** 사업 추진

* 일본에서는 2014년 최초 발행되었으며, 자국 및 해외 녹색사업(Green Project)에 대한 민간자금 조달을 위해 조성한 특수목적 채권으로 2020년 기준 약 11.86조원 발행¹⁸⁾

** 외국계 기업 또는 개도국 정부 등 자국기관 외의 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특수목적 채권으로 녹색사업 추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며 엔화로 발행¹⁹⁾

- 재정메커니즘 지원: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재정메커니즘인 녹색기후기금(GCF)과 지구환경기금(GEF)의 운영 효율화 지원

*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부분 선진국의 공여금으로 조성

-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: 개도국을 대상으로 JCM*을 활용하여 탄소감축 잠재량이 큰 농업, 산림업, 어업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과 “패키지” 기반 저탄소 인프라 구축 지원, 저-GWP*/비불화탄소 냉매 기술 적용 지원에 주력하여 시장점유율 확대

* (Joint Crediting Mechanism) 공동크레딧메커니즘이라고 불리며, 선진국에서 개도국을 지원하여 감축된 온실가스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, 2011년부터 일본에서 강력하게 주장

** (Global Warming Potential) 지구온난화지수를 뜻하며, 특정 온실가스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이산화탄소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하여 수치로 환산한 값

- (싱가포르) 2020년 3월 “Charting Singapore’s Low-Carbon and Climate Resilient Future”라는 제목으로 LT-LEDS를 발표하였으며,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²⁰⁾

※ (탄소중립 목표) 2050년까지 33 MtCO₂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탄소중립 가까이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둬

- 전략적파트너십 구축: 국제기구와(WTO, WIPO, IMO, ICAO)의 협력 강화 및 지역사무소(ASMC, WMO) 유치, ASEAN 고위급회담 및 대화 활동 전개

- 양자·다자협력: 자국의 경험과 모델의 해외 확산을 위해 C40* 등을 통한 양자 및 다자 기반 남남협력과 삼각협력**을 지원

* (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) 도시기후리더십그룹, 2005년에 18개의 협력 도시로 시작하여 현재(2021.4. 기준) 97개의 도시 협력체로 서울도 회원도시로 가입되어 있음²¹⁾

** (South-South Cooperation) 개도국-개도국 간의 협력, (Triangular Cooperation) 선진국 또는 국제기구-개도국-개도국 간의 협력

- 개도국 지원사업: 개도국 대상 싱가포르 플래그십 기술지원(TA) 사업을 추진하고, 싱가포르협력프로그램(SCP)과 Climate Action Package (CAP)를 런칭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 및 감축 관련 국가전략 수립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

- (덴마크) 2020년 12월 “Climate Programme”이라는 제목으로 LT-LEDs를 발표하였으며,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²²⁾
 - ※ (탄소중립 목표)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70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,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
 - 전략적파트너십 구축: 당사국총회, P4G 서밋, SDG7 서밋 등을 통한 국가간 고위급 연대 구축과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전략 국가들* 과의 그린파트너십 구축
 - * 한국, 중국, 일본, 인도네시아, 인도, 멕시코, 남아프리카
 - 개도국 지원사업: 국제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C40, GGGI, P4G 등을 통해 아프리카,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, 개도국 대상 기술 지원(TA)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장기협력사업의 단기 활동 이행(연간 약 27억원 규모) 추진
 - 주력 분야에 대한 양자·다자협력 추진:
 - ① 대량 온실가스 배출 국가 및 기관과의 에너지협력(인도네시아, 중국, 멕시코, 남아프리카, 베트남, 일본, 에티오피아)(2020년 기준 약 560억 원)
 - ② 식량생산 자원효율화를 위한 양자협력(중국, 케냐, 베트남, 멕시코, 콜롬비아, 인도네시아, 나이지리아)
 - ③ 신흥경제국 대상 지속가능 그린 밸류체인 조성 지원(2020년 기준 약 27억 원)
 - 주력 기술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:
 - ① (연구개발) 미국, 한국, 남아프리카, 중국, 인도와의 기후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협력 확대
 - ② (리더십 강화) 푸드시스템, 플라스틱 및 해양폐기물, 화학물질관리 및 폐기, 항공/교통, 수소 분야에 대한 대화와 포럼 개최를 통한 국가 리더십 강화
 - ③ (시범협력사업) 에너지, 물, 도시개발, 식량의 전략 기술분야에 대한 3건의 시범 협력사업 추진(2020~2022)

한국의 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”에서의 국제협력

- 대한민국 정부는 '20년 12월 31일에 “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”을 LT-LEDs로서 발표하였으며, 국제협력에 관한 주요사항은 아래와 같음^{23),24)}
 - ※ (탄소중립 목표)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.4%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,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함
 - 전략적파트너십 구축: 주요 기후변화 선도국(EU, 미국)과의 협력체제 구축 및 한중일 협력 증진
 - 양자협력 추진: 베트남, 페루 등 주요개도국과의 양자협정을 체결하고 온실가스 감축사업 발굴 및 추진
 - 개도국 지원사업: 그린뉴딜 ODA 확대 및 GCF, GGGI 등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 지원

시사점

- (국내 기후기술의 해외확산을 위한 범부처 협력)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내외 거버넌스의 유기적 연계와 주요 법 및 국가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계획, 즉 LT-LEDS에서의 “국제협력”에 대한 범부처 이행전략 수립 필요
 - LT-LEDS는 국가 기후변화대응 목표달성을 위한 이행 전략으로서, 국제사회 이행점검에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‘국제협력’의 이행 전략 수립 필요
 - ※ 파리협정 주요 아젠다로서 부각이 되고, 이행점검 시 고려가 되는 국가 간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에 대한 협력 사항은 한국의 LT-LEDS에서는 매우 소극적으로 제시됨
 - 범부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제협력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총괄 수집·검토하고,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 분류를 통해 한국의 국내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이행전략 수립 및 관리 필요
 - 또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분류 시, 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후변화대응 관련 국가 상위 법 및 계획에서 나타나는 ‘국제협력’ 관련 사항들*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
 - * ①해외배출권 확보 체계 마련, ②기후기술 상용화·사업화(기반사업), ③기후기술 연구 개발, ④기후협상, ⑤국제기구 및 국제협의체 협력, ⑥양자협력 및 ODA
 - 한국의 우수 기후기술의 해외 확산과 해외 기후시장 선점을 위한 범부처적 목표를 수립하고 글로벌파트너십 구축, 이니셔티브 구축, 양자·다자협력, 개도국 기술지원사업 추진 등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필요
- (주력 기후기술 분야 선정 및 플래그십 사업 추진) 국내 우수기후기술의 해외 확산 및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주력분야에 대한 국제협력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기후기술협력 규모화 필요
 - 국가 간 ‘기술개발 및 이전’에 대한 범부처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한국의 주력 기후기술분야를 선정하고 해외 시장 선점 및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프로그램 확대 필요
 - ※ 과기부는 『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(2021.4.)』을 통해 10대 핵심기술을 발표한 바 있으나, 차세대 기술개발(R&D)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도국 협력 기술에 대한 선정 필요
 - 범부처 기후기술 관련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장을 마련하고,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형성을 통한 국제협력의 가시적 성과 창출 필요
 - 또한 기후 원천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선진국과의 협력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내 활발히 활동 중인 국제기구를 활용한 개도국과의 기후기술협력 강화 필요
 -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력으로 선진국과의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개도국의 기후변화대응을 지원함으로써, 기후기술 기반 탄소중립 이행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확산 및 해외시장 진출·선점 도모 필요

참고문헌

- 1) UNFCCC(2015). Decision 1/CP 21, Paragraph 35. 출처:
<https://unfccc.int/resource/docs/2015/cop21/eng/10a01.pdf> (접속일: 2021.4.26.)
- 2) IDDRI(2016) Policy Brief: Long-term low emissions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Paris Agreement-Why, what and how?.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
- 3) 손지희, 엄다예, 김제원, 김지희, 배크리스탈, 이윤정(2020). 기후재원과 거버넌스 연계를 통한 기후기술 확산 체계화 연구. 녹색기술센터
- 4) United Nations(2015). Paris Agreement Article 4 Paragraph 2. 출처:
<https://unfccc.int/process-and-meetings/the-paris-agreement/the-paris-agreement> (접속일: 2021.4.26.)
- 5) United Nations(2015). Paris Agreement Article 4 Paragraph 19. 출처:
<https://unfccc.int/process-and-meetings/the-paris-agreement/the-paris-agreement> (접속일: 2021.4.26.)
- 6) 윤인숙, 김민주(2019) 파리협정 이행규칙의 분석을 토대로 한 신기후체계 규범 연구. 한국법제연구원
- 7)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(법률 제16646호, 2019. 11. 26., 일부개정)
- 8)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(2021.4.20. 제정)
- 9) 국제개발협력기본법(법률 제17302호, 2020. 5. 26., 전부개정)
- 10) 관계부처 합동(2021.1)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(2021-2025)
- 11) 녹색성장위원회(2020.3) 제3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(2019-2023)
- 12) 관계부처 합동(2019.10)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
- 13) UNFCCC 홈페이지. 출처: <https://unfccc.int/process/the-paris-agreement/long-term-strategies> (접속일: 2021.4.23.)
- 14) German Federal Ministry for the Environment(2016) Climate Action Plan 2050: Principles and goals of the German government's climate policy
- 15) NDC Partnership Members & Membership. 출처: <https://ndcpartnership.org/members> (접속일: 2021.4.26.)
- 16) The Government of Japan(2019) The Long-term Strategy under the Paris Agreement
- 17) 정한교(2020.11.15.) “2050년 탄소중립’ 선언한 일본,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도입 확대”, 인더스트리뉴스. 출처:
<https://ndcpartnership.org/members> (접속일: 2021.4.26.)
- 18) Yuzo Yamaguchi, Rehan Ahmad(2021.2.24.) “Japan sets sights on another record year of green bond issuance”, S&P Global Market Intelligence. 출처:
<https://www.spglobal.com/marketintelligence/en/news-insights/latest-news-headlines/japan-sets-sights-on-another-record-year-of-green-bond-issuance-62701865> (접속일: 2021.4.26.)
- 19) Adam Hayes(2019.8.26.) “Samurai Bond”, Investopedia. 출처:
<https://www.investopedia.com/terms/s/samuraibond.asp> (접속일: 2021.4.26.)
- 20) Prime Minister's Office of Singapore(2020) Charting Singapore's Low-Carbon and Climate Resilient Future
- 21) C40 홈페이지. 출처: <https://www.c40.org/cities> (접속일: 2021.4.26.)
- 22) The Danish Ministry of Climate, Energy and Utilities & Ministry of Foreign Affairs(2020) Climate Programme 2020: Denmark's Mid-century, Long-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
- 23)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(2020) 2050 Carbon Neutral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: Towards a Sustainable and Green Society
- 24) 관계부처 합동(2020.12) 『2050 탄소중립』 추진전략

(약어 정리)

- ◆ ASEAN(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) : 동남아국가연합
- ◆ ASMC(ASEAN Specialised Meteorological Centre) : 아세안특수기상센터
- ◆ CAP(Climate Action Package) : 기후행동패키지
- ◆ CTCN(Climate Technology Centre & Network) : 기후기술센터·네트워크
- ◆ C40(Cities Climate Leadership Group) : 도시기후리더십그룹
- ◆ ESG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) : 환경사회지배구조
- ◆ EU(European Union) : 유럽연합
- ◆ GCF(Green Climate Fund) : 녹색기후기금
- ◆ GEF(Global Environment Facility) : 지구환경기금
- ◆ GGGI(Global Green Growth Institute) :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
- ◆ GWP(Global Warming Potential) : 지구온난화지수
- ◆ G7(Group of Seven) : 주요 7개국 협의체
- ◆ ICAO(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) : 국제민간항공기구
- ◆ IKI(International Climate Initiative) : 국제기후이니셔티브
- ◆ IMO(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) : 국제해사기구
- ◆ JCM(Joint Credit Mechanism) : 공동크레딧메커니즘
- ◆ LT-LEDS(Long-Term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) : 저탄소발전전략
- ◆ NDC(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) : 국가자발적기여
- ◆ NKI(National Climate Initiative) : 국가기후이니셔티브
- ◆ ODA(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) : 공적개발원조
- ◆ P4G(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) :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
- ◆ SCP(Singapore Cooperation Programme) : 싱가포르협력프로그램
- ◆ SDG(Sustainable Development Goals) : 지속가능발전목표
- ◆ TA(Technical Assistance) : 기술지원
- ◆ UNFCCC(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) : 유엔기후변화협약
- ◆ WIPO(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) : 세계지식재산기구
- ◆ WMO(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) : 세계기상기구
- ◆ WRI(World Resource Institute) : 세계자원연구소
- ◆ WTO(World Trade Organization) : 세계무역기구

본 내용은 녹색기술센터(GTC)의 주요사업(손지희, 신종석, 엄다예, 이원아, 김제원, 배크리스탈)「한-CTCN 협력 프로그램 확대 및 고도화 연구: CTCN 기술지원(TA)을 중심으로」의 일환으로 분석 중인 내용의 일부를 요약·정리한 것입니다.